

현대 영미문학에 나타난 생태학의 문제*

— 개리 스나이더를 중심으로 —

변 창 구**

현대 과학문명의 결정체이자, 인간의 잔혹함의 상징인 핵폭탄이 지구를 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 1945년은 우리들에게 생태학의 중요성을 확신시켜주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었다. 1945년 7월 미국 뉴 멕시코주에서 시행된 핵폭탄 발사 시험은 이제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사멸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천명하는 극적인 사건이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풀어헤쳐 “인간 제국의 영역(the bounds of the human empire)”을 무한대로 확장해보려는 베이컨의 꿈은 드디어 실현되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장미빛 꿈이 잿빛 악몽이 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인간의 엄청난 과학적 지식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었고, 단순히 인류의 전멸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오염으로 인해 절멸할 수도 있음을 일본의 두 도시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인간이 자신들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DDT 같은 살충제들도 사실은 본래의 대상이었던 해충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 나아가 지구 전체에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에 잠재한 이러한 파괴성은 너무나 다양하게 드러난다. 핵의 위험성, 농경지에 뿌려진 질산 비료, DDT를 비롯한 살충제들, 각종 화학물질,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영문과 교수

고염제 등의 생화학기들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은 카슨Carson의 대표작인 『조용한 봄Silent Spring』, 코모니Commoner의 『생태학의 기본Fundamentals of Ecology』 등을 통해 점점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의 학문체계로 정립되어간다. 1960년대에 이르러 자연이 더 이상 인간들의 욕구를 받아주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들의 손에 의해 쉽게 상치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간다. 19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구에 자연 파괴와 도시 오염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는 이미 워즈워스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 등을 통해 표현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위기는 20세기 중엽이 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지식인들의 경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생태학이 단순히 학문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더욱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생태계의 위기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오만한 인식에서 유래함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바이며, 또한 이 위기의 근원이 현대문명에 내재한 과학기술에 의지해 생산성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이기심도 한 몫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생태학의 과학적 원리를 인간 정신에 접목시키는 일은 생태학의 인간과의 관계를 신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있고, 그 생태계 자체도 다른 층위의 생태계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층위는 다른 층위와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등 자연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¹⁾ 따라서 자신 이외의 존재를 대립적 관점에서만 보려는 편협한 자아관념은 우주의 더불어 살기 정신을 배제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허구적 자아의 개념은 인식론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인내심이 삭용하는 선까지만 작동할 수

1) F. W. Bateson, *Wordsworth: A Re-Interpretation* (London: Longman, 1954), 25-34쪽 참조.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신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방식을 지니게 되는데, 가장 큰 기류는 표층생태학과 심층생태학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cism)”를 견지한 채 과학기술에 의존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량하려는 태도인 반면, 후자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cism)”적 관점에 입각해 인간은 자연과 이항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태계의 한 요소에 불과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의 존재들이 “동등하게 생존할 권리(the equal right to live and blossom)”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²⁾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생태학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다. 따라서 현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이 주도한 현대 과학 기술문명에 그 문제가 내재함을 간접적으로 응변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가 그 구성원들의 신념의 표현이라면, 현 자연계의 위기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듯,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을 인간의 착취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 이후의 인간중심주의 사상과 과학과 기술의 결합으로 185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 과학문명이 자연계의 파괴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D. H. 로렌스, 스나이페, 스나이더 등의 현대 문인들은 이성중심주의 및 인간(특히 백인,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해체하여 공생적 세계관을 정립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생태 여성주의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과 자연의 대립구도에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도가 중첩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간의 복잡한 양상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여성주의는 우선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의 타자화와 남성에 의

2)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for the Twentieth-First Century* (Boston: Shambhala, 1995), 151-155쪽.

한 여성의 나자화를 동일시한다. 자연-여성에서 출발하여 자연-여성으로 돌아가는 남성적 자아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서구 가부장 문화는 자연의 나자화와 여성의 나자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성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능욕은 자연파괴/훼손과 연결되어 남성 지배욕구의 주요 예로 연기된다.

여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문제는 당연히 여성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들 중에는 여성이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인간 속으로, 즉 문화의 영역으로 돌아올 것을 주장한다. 반면 여성생태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연결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양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남성들에게는 망각에 기초한 본분 초월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즉 남성 문화에 동침하되 그들에게 “파괴”를 지양하고 생명의 중요성과 공존을 가르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망각에 기초한 허구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생태주의는 초월, 파괴 중심의 지배구조 체제의 기존 문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주체가 되는 공존체제를 지향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데도 일조한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과 인간중심을 동일 반열에 위치시켜 자연과의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태학도 단순히 이론적 진개만으로는 인간, 자연, 여성 상호간의 불균형을 역동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의 경우 생태학과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것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학에 표현된 자연, 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학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배제하는 문학 연구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한다. 즉 자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학의 문명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학은 내재적으로 생태학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문학과 생태학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도의 중요한 한 예는 아마도 미이커 Joseph Mecker의 『생존희극: 문학생태학연구』*The*

Comedy of Survival: Studies in Literary Ecology(1972)를 들 수 있다. 이 선구적 연구는 문학 생태학을 문학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주제와 관련시켜 정의 내리고,³⁾ 생태학적 개념에서 희극과 비극을 증명한다. 그 외에도 자연중심문학(nature-oriented literature)에 의해 새로운 문학 탐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워즈워스와 소로우의 자연 글쓰기(nature-writing)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연 글쓰기 작가들이 거주하는 자연은 단순히 도피지는 아니나, 그들은 소로우가 만했듯, 자연 속에서 깊은 삶을 살고 삶의 진수를 뻔아먹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그들은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을 터득하게 된다.⁴⁾ 즉 그들은 자연 심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낌으로써 우리에게 말거진 일은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연에 맞추는 것이라는 생태중심적 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이 자연으로 귀의했던 것은 병든 문명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병들지 않은 다른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로우가 자연친화적 삶을 2년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었듯이, 현대인에게 문명으로부터 이탈하라는 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다. 특히 자연 글쓰기가 주장하는 문명권과의 일정한 거리 확보는 삶의 현실에서 떨어져 문명과 결별한 기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자연을 우리 문명의 일부로 흡수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 것이다.

서구의 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대표적인 생태 시인들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생태의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시각은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 — 인간의 이기주의 및 교만 — 가 그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현대 생태계의 위기를 단순히 자연파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 충족과 지배욕구에 기인하는 현대 문명의 근본적 문제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즉 자연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

3) Joseph W. Meeker, *The Comedy of Survival: Literary Ecology and a Play Ethic*. 3rd ed. (Tucson: U. of Arizona Press, 1997), 29쪽.

4) Ibid., 161.

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어 세상의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이고 따라서 그들을 지배할 권리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가 모든 생태 문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오랜 서구의 생각 —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모든 가치의 근원이며, 모든 사물의 척도” — 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이러한 자연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생태문제의 해결 대도는 스나이더(Gary Snyder)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스나이더는 자연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환경을 반영하는 대화식의 시를 즐겨 쓴다. 자연을 통해 주위와 대화하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장군풀을 자르고 있으며, 시냇물이 흘러가는 의미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시의 특징은 실제의 묘사 이상의 어떤 변도 암시하는 바가 없다. 그냥 사물의 이름, 산, 나무 등의 이름과 더불어 이러한 자연 현상의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쌓이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 장소의 의미를 시사하게 되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스나이더에게 지구라는 생명공동체는 자신의 욕망실현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공동의 장이다. 스나이더에게서 시는 의식확장의 수단이다. 물질중심주의와 탐욕에 의해 소외되고 단절된 인간의 의식을 다시 생명의 원천인 자연의 흐름 속에 연결해 인간 의식의 혁명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그는 시를 활용한다.⁵⁾ 시는 인간의 의식과 세계, 즉 자아와 타자가 만나 진체를 인지하게 되는 회합의 공간이다. 인류의 생태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진제한 욕망, 그 욕망의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본 중심의 발단제인 주위의 기술문명의 소산이다. 이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적인 혁명밖에 없다. 그는 시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변화를 이룩하려하였다.

스나이더의 자연과의 중추는 “먹이사슬(food chain)”의 개념일 것이

5) Howard McCord, *Some Notes on Gary Snyder's Myths and Texts* (Berkeley: Sand Dollar, 1971), 42쪽.

다. 먹이사슬은 식물에서 비롯된 음식 에너지가 먹고 먹히는 과정을 거듭하여 일련의 유기체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생명체와 그것들이 에너지 및 물질과 맺는 끊임없는 유통을 탐구한다”는 스나이더의 말이 바로 이러한 영향관계를 설명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과 전이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연세계와 분리된 인간의 의식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따름이다.

현대의 생태위기는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인간이 스스로의 교만에 눈멀어 스스로를 자연과는 다른 존재로 착각하여 자연을 하나의 욕망충족의 대상으로 보는 데 있다. 주지하나시피 지구는 오염, 부적절한 관리, 인구증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간의 자연파괴행위는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미친 짓임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동식물들이 우리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자연이 도움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나이더는 자연계의 존재들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스나이더의 시는 그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대해 주목하는 시의 예로 “54년 여름 늦 눈과 목재 파업”을 보기로 하자. 이 시는 워싱턴 주의 지리적 특징을 드러내는 묘사들, 일을 찾아다니면서 보게 된 여러 장소들의 상세한 묘사 등을 통해 지리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은유적 표현은 거의 없고, 사물과 사실에 대한 직나라하면서도 시적이지 아니한 묘사로 구성된 이 시는 건국 “목재 파업”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연의 모습 — “젖은 신백아래, 얼어붙은 호수위로”은 이 시가 미국의 북서부 지역의 자연을 무대로 한 짓임을 시사한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갖는 시인의 상념들을 표현한 것이 너무 직나라하다.

나무와 포도의 씨끼기들, 짐승, 풀,

식용 풀뿌리, 인디인들의 발과 배인들
 춤사위는 날아졌다, 펼쳐져서는, 사그라지고
 마을은 무대이 되고, 약! 말이
 장시와 기다가 아우러진 밤을 뒤뜰이놓았네.
 “낮은 켄데기 안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어지러이 늘어선 양철 캐프와 지저분한 길.
 (“기나긴 산맥과 강들”)

화자는 자연 환경이 황폐화해 가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인간의 지성 난용에 기인 한 것이다. 이러한 파괴적인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화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새로운 사회”를 그냥 도모한 뿐이다. 동물 소모의 예는 “스쿠킨척 강가에서 트럭에 치여 죽은 안시습”이라는 구절이 잘 말해준다. 이는 그의 시 “길가의 시체들”을 연상시킨다. 스쿠컴(Skookum)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악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자동차는 현대의 괴물이 된다. 마지막 연은 새로운 고속도로로 상징되는 힘에 대항하는 자연을 편드는 내용이다.

육차선 고속도로의 사선과 수도로 가는 12개의 차선표지
 다리 구조물 땅딸막한 불도저
 — 노란 딱정벌레들

나는 매를 대신해 발언을 한다.
 (“기나긴 산맥과 강들”)

『신화와 텍스트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 즉 북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북서부 끝까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의 황폐화를 제로명한다. 지명들은 이미 알려진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나타난다. 나무 자르는 장면들은 “벌목” 부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벌목과 연관된 대회로부터 스나이더가 일했던 오래된 농부 지방의 “웜 스포링 목재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된

다. 다양한 동물들이 묘사된다. 블랙베리 추수 장면. 이 곳은 자연자원을 착취하는 자 — 벌목꾼, 지붕넌꾼 — 들이 신치는 장소이다. “남은 켄데기 안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라는 모토는 스나이더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즉 이는 미래의 유토피아를 향한 시인의 마음을 보여준다.

『신화와 텍스트들』의 제2부 “사냥”은 미국 북서부 아메리칸 인디언의 관점에서 본 자연을 보여준다. 현재의 미국과 백인이 오기 전의 미국 원주민들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자연의 황폐화 또는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무당의 정체성을 지니고 시를 전개한다. 화자의 이름이 후드산(Mt. Hood)의 미국 원주민들의 이름인 “Wy-cast”인 것은 이러한 관점을 강조한다. 원주민 언어로 산의 이름을 명명한 것은 장소의 의미와 자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해니건은 “무당 역할은 서구문화가 자주 회생시켰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시인이 깨닫는 방식이 될 수 있다”⁶⁾라고 말한다.

페르소나인 무당은 “사냥”의 시작부분에서 자신은 전통적인 무당 처럼 죽은 자를 상징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에게서 힘을 얻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화자인 “I”는 목재 트럭이 다니는 현대에 살고 있다. 신화적 세계와 실제 세계가 얹혀 제시된다.

나는 앉아있네, 별 생각 없이 목재운송용 도로가에
새로운 신화를 탄생시키면서
문에 익숙한 개를 쳐다보면서.
마지막 트럭은 가버리고,
(『신화와 텍스트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무당이 독자에게 힘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

6) Tom Hienighan, “Shamans, Tribes, and the Sorcerer’s Apprentices: Notes on the Discovery of the Primitive in Modern Poetry,” *The Dalhousie Review*, 59(Winter 1979-80), 605-620.

를 보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제목의 “사냥”은 “새로운 신화를 추구”함을 말한다. “마지막 트럭이 가버렸다”는 시구는 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화는 나무가 사라진, 황폐화된 자연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일컬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신화의 추구는 스나이더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신화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의 재생을 담보한다.⁷⁾

“사냥”의 제6부는 곰-여인의 결혼을 다룬다. 곰 및 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실들이 산재해 있다. 곰-여인의 이야기는 곰과 남자를 동일 선상에 위치시키는 중요한 발상의 전환과 신화적 차원을 보여준다. 여인은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도 도망하지 않으며, 날카로운 낚 이빨을 가진 아기를 복고면서도 그녀는 이러한 곰과 남자를 동일시한다. 이를 용납치 않는 것은 여인의 오빠들이다. 즉 이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애매하며, 인간은 주위환경과 유리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동물과 여인의 성적 관계는 제7부에서도 보여지는데 “우리의 처녀들이 코이요테 곁에 누워도/모는 것인 잘되어간다./ 슈스웍종족.”(『신화와 텍스트들』 26), 이는 미국 원주민들이 동물인간(animal people), 새인간(bird people), 물고기 인간(fish people) 등으로 서로 부르듯이 인간도 동물의 하나에 불과함을 잘 말해 준다.

무당의 관습 중의 하나는 동물을 통해 말하는 관습이다. 동물의 페르소나를 택하여 제1인칭으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0부에서 스핑크스와 여우는 자신들에 대해 1인칭으로 말한다(『신화와 텍스트들』). 이는 화자의 성격까지도 보여주는 인품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화자와 인간들 사이에는 전혀 긴장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물도 인간과 변별 나쁘지 않은 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스나이더는 동물과 인간은 전혀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며, 서로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서로를 근접시키려 하는 것지림 보인다.⁸⁾ “사냥”의 제12부는 자연으로 회귀함의 효과를 이야기한다. 여

7) Henighan, 621쪽.

기서 화자는 산악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평지로 돌아온다. 평지에서 그는 벌집이 있는 야생 사과나무에서 벌에 쏘이지 않으면서 사과를 딸 수 있게 된다. 이는 “나에게 아직도 산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다(『신화와 넥스트들』). 즉 산에 속한다는 것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산 사람이 됨으로써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고, 인간과 자연의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스나이더의 시각은 현대 사회의 파괴적 요소가 축소된 후기 산업 사회로 향한다. 산업분명의 파괴적 요소에 반하는 기준은 환경주의적 관점이다. 환경적으로 조화로운 상황과 산업사회의 악몽같은 파괴적 상황은 환경분제를 논할 때 항상 같이 거론되는 요소이다. 현대 시구 문명의 슬픈 상황에 대한 스나이더의 생각은 빈증밋적이다. 즉 디스토피아(dystopia) 對 유토피아를 말할 경우 디스토피아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환경이 손상을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삶에 해가 가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유토피아는 인간과 미인간 모두를 망라한 모든 생명체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일컫는다.⁸⁾ 이 상반된 미전 속에서 스나이더의 유토피아적 이상은 적절히 수정되면서 발전한다.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스나이더에게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의 시는 오늘날 개인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가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스나이더는 현대서구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가치나 관심에 초점이 모아지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이러한 변화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연기하지 않는다. 점증하는 기술과 과학분명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스나이더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진이며, 우리를 순

8) John Elder, *Imagining the Earth: Poetry & the Vision of Nature* (Chicago: U. Illinois Press, 1985), 40-42쪽.

9) Lars Norstrom, *Theodore Roethke, William Stratford, & Gary Snyder: The Ecological Metaphor as Transformed Regionalism* (Stockholm: UPPSALA, 1989), 127쪽.

수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친착하게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연루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산다는 것은 경계를 생각 아니할 수 없지요. 가능한대로 나은 선택을 하면서요.” 좀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스나이더의 생각은 매우 겸손하게 표현된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진”이라는 표현은 완벽히 직진한 대책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의 “가능한대로 나은 선택을 하면서요”라는 표현도 매우 추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실제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최악의 지표를 수립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스나이더의 주장에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며, 그가 일부러 특징한 방안을 제안하지 않으려 해서도 아니다. 스나이더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은 이상, 즉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현실의 과잉들을 인지하게 된다.

스나이더의 작품에서 디스토피아와 관련 있는 악 혹은 비정상적인 자연 파괴의 이미지 또는 상징과 연관이 있다. 현대 기술문명은 분명히 인간 및 비인간 모두에게 위협적이며, 이 주제는 지속적으로 그의 작품에서 부각된다. 예를 들어 현대 문명이 싸구려 에너지인 화석 에너지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자주 등장한다. (예 “석유”, “폭탄 실험” 등의 시를 보라). 자연 자원을 고갈한 정도로 착취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다(예 “대지: 그곳의 고래들”, “돈은 이층으로 올라가네”를 보라). 이러한 파괴적 성향의 중심 상징은 도시이다. 도시는 부정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로서 인근지역 개발 등과 관계가 있다. 이상적인 도시, 좋은 도시를 보람직한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일면 도시는 모든 자연스런 삶에 파괴적인 힘으로 드러나며, 일면 도시는 인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면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도시는 현대생활의 상징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한다. “흙과 마위로부터”에서 “이 도시의 스모크와 건물의 철골은 이제 사라지고 없네. 미래의 음악과 도시가 인지리

니더에서 기다리네”라는 구절은 현대 도시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올 긍정적인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난다.

자연의 요소가 도시 속에 밀고 들어와 자연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경우 아무리 도시의 건물들이 웅장하더라도 그 도시를 빙도는 것은 커나란 밭당 속에서 권세를 누리는 관료나 기업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 앉은 비둘기 같은 자연의 전령들이거나 백년도 안된 소나무이다 (“늦은 밤 주지사와 예산에 대해 얘기하냐”에서 “주정사의 커나란 소나무가 100년이 채 안되었네.” 州廳舍의 소나무가 100년도 안되었는데 대단해 보인다면 정작 자연 속의 소나무는 어떻겠는가?)

도시에 대한 스나이더의 생각은 자주 인용되는 그의 시 “최전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서 도시는 “암”, “억겨운 바람”, 산림황폐화(“사슬톱이 골짜기에서 오르렁거리네.”) 강간(“다리를 밀려라”) 등 환경 파괴의 현상이 드러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급선무를 강조한다. “예술원 회의가 유레카에서 열리다”라는 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와 도시 풍경과 대비시키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불러온다. 유레카라는 도시에는 “원자력 발전소/ 나무 조각 무디기/ 타지인이 소유한 제제소”가 있다. 유레카의 미래가 긍정적일 수가 없다. —“여기 사는 누구도/ 권리가 없다/ 이 마을을 다스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스나이더가 보는 도시의 긍정적인 면은 주로 도시가 주는 감각의 만족, 즐거움 등 때문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사실 도시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동차는 스나이더에게 부정적 상징인데 도시의 대표적인 사물이다. 현대 도시는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가치관이 변하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나이더는 미국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곳의 과거, 신화, 기기에 살던 인종들에 대해 배우고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내가 새로운 지역주의라 칭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된다. 이는 미국적 정체성의 필요를 부정하고, 대륙의 이름을 고치고, 지역명도 고치고, 정치권력도 지우고, 시간을 되돌려 놓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불의와, 착취, 그리고 파괴를 인정한다. 그리고서는 원주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같이 손을 잡고, 지방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재건설하려고 해야 한다.¹⁰⁾

시인은 이러한 점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시인은 착취자인 문명에 대해 착취당하는 자들인 동물, 나무, 물, 공기, 풀들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을 사람으로 대하고 해와 달의 움직임과 꽃과 동식물의 이름을 자신의 일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당은 야생동물, 식물의 정령, 산의 정기를 대변해야 한다. 그들은 무당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시인은 자연을 의식적으로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자연과 인간은 동등하게 지구상에서 살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 동물이 인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는 시에 “날개치면서”가 있는데, “까마귀 누마리가 잠깐 이야기하곤/ 날아간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라는 구절이 보여주듯 이야기하는 동물들을 통해 시인은 인간과 동물의 공유점을 말한다. “뜯기 축제”에서 곰과 여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만해주듯 인간은 온갖 종류의 인간들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과 자연의 일반적인 이분법이 거부되고, 인간이건 아니건 모든 종류의 삶에 파괴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이분법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내지: 그곳의 고래들”에서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가요?”라는 질문은 현대 산업 기술이 식물과 동물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과연 앞으로 인간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잘 말해준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과 비인간을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는 셈이다. 미국이 쇠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이 산과 강, 나무와 동물

10) Norstrom, 129쪽 재인용.

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내일의 노래”). 자연계의 온갖 것들 — 새, 식물, 동물 — 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다.

인류의 위기는 단순히 환경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현 위기는 인간의 정신적 위기이며, 이는 영혼의 상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명이 가져다준 여러 이기들이 인간의 정신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스나이더는 현대 문명을 유아문명이라고 부른다. 그의 대표작인 『신화와 텍스트들』은 별복으로 대표되는 현대 산업자본주의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삶의 요람인 자연을 파괴하고 나아가 인간의 삶 자체를 황폐화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욕망이라는 환상이 인간의 진실된 본성을 고지 못하게 만들어 자연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소외된 상태로 화하게 된다.

나무들이 드리눴다
 잘려 쓰러진다.
 에이렘의 나무, 대지의 이신 퀴벌레의 나무도,
 ...
 시아미의 소나무도, 하이나의 삼나무도
 잘려 나간다. 예인이 이스라엘의 손에
 아베네의 요정들 손에
 로마의 자식 손에
 이제나 지제나 항상,
 잘려나간다,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을 위해
 최신식 문도저에 땅이 개발된다.
 (“별복”)

이 경우 별복은 단순히 숲의 파괴 차원을 넘어선다. 인간의 과거 신화, 전통 등을 발살하려는 인간중심주의의 음모를 총칭한다. 스나이더는 지금도 세계도처에서 보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숲의 파괴는 서구의 잘못된 인간중심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광기에 가까운 것이며, 인간의 잘못된 위상을 파괴함을 의미한다. 인

간이 우주의 핵심이라는 생각 — “인간의 우주의 심장이다/ 5대 원소의 산물이다” — 은 결국 인간 이외의 사물들을 도구화하는데 급급함을 보여준다. 그는 “대지: 그곳의 고래들”라는 시에서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인간이 길으로는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타만물과 동등한 존재일 뿐임을 말한다.

인간은 우주의 심장이다
5대 원소의 산물이다.
음식과 색깔과 소음을 즐기려고 태어난
내 등에서 공자를 내려놓으니
이제 소음이 온 누리에 충만해진다.
나를 괴롭히는 건 이 그릇터기들:
그들은 나무로 무엇 했을까?
그들은 영혼을 구하고 땅을 움켜쥐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흔저가려 했다
그 끈이 못 박히지 않은 양.
제대로 한 마지막 목수질의 결과,
유대인이 한 일 중에서는,
(“벌목”)

산의 나무를 베는 행위는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 행동이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자연의 허락도 없이 자연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다. 이는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벌목은 야생의 자연을 파괴하는 중심 이미지이다. 산림의 황폐화는 옛 중국의 경우 지속되어온 일이었다. — “고대 중국의 산림이 벌목되었다/ 언덕은 황해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벌목은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시민의 임부는 이 축소되는 자연을 위해 자연의 대면인이 되는 것이다. — “통나무 트럭이 새벽 네시에 떠나자... 세상도 같이 사라져버렸다.” 나무가 벌목되어 실려나가면 세상은 사라진 셈이다.

스나이더가 깨달은 생태계의 순환논리, 유기적 연관성, 재생의 개념들은 그의 생태학의 근간을 이루며 이성과 논리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을 주문한다. 인간의 욕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다시 대자연이라고 하는 전제성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갇힌 자아의 틀을 넘어 자신도 지구라는 생명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함을 깨닫고 나아가 만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즉 “취위 잡초들이 존귀하며 그것들이 신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는 소중한 인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기적 자아를 죽임으로써 더 큰 자아,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생태학의 경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의 조화와 상생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생태적 자아의 개념도 유사하다.

모든 것들이 그물의 코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의 개념은 인간중심의 교만이 빚어낸 허구에 불과한 따름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만물과 상호교통하며 서로 그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의 관계를 넘어 먹고 먹히는 끊임없는 먹이사슬과 순환을 통해 서로가 상대 속에 녹아 서로 교통할 때 세상은 비로소 화합의 길을 찾게 된다. 이러한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스나이더에게 있어서는 음식의 이미지이다. 세상의 생명체 모두는 다른 사물을 먹음으로써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 존재 자체는 다른 사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스나이더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단순히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나누는 신성한 행위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생명체를 먹는 행위는 잔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이다.

만물의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만 자기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자연

과 사물에 대한 인본주의적 사고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체 의식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킬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인본주의적 교만을 벗고 생태적인 겸손을 지닌 것을 촉구한다. 현대 아메리칸 인디언의 치유사(medicine man)로서 그리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여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스나이더의 꿈이다. 만물의 상호의존과 상호관통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상생의 삶을 실천하는 예로서 스나이더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삶과 천학을 예로 들고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여러 생명체들도 제의와 춤, 그리고 종교를 통해 그들의 견해를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문화에서 스나이더는 궁극적 형태의 생태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한다.¹¹⁾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네발 달린 짐승, 날 짐승, 헤엄치는 짐승들처럼 단지 두발 달린 짐승에 불과하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기도를 본뜬 “내가족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그는 인간과 흙, 공기, 물, 동물, 식물은 모두 더불어 자연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서 자연은 인간의 일부이다.

인간이 자연계에 대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너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인간 외의 생명체들이 인간보다 더 깨어 있어 인간에게 따뜻한 형제애를 가지고 지구에서의 생존의 방법과 비전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말한다. 자연을 인간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같은 태도는 자연을 나사로 간주해 인간의 자아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지구 문명의 근본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¹²⁾

자연과 조화와 상생의 비전은 『신화와 텍스트들』에서 사냥에 대해

11) Ekbert Fass, "Gary Snyder," *Towards A New American Poetics: Essays and Interviews* (Santa Barbara: Black Sparrow, 1979), 115쪽.

12) Patrick Murphy, *Understanding Gary Snyder*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ress, 1991), 14쪽.

이야기할 때 잘 드러난다. 스나이더는 현대식 사냥 — 총을 사용하여 무관하게 사냥감을 죽이는 — 과 의식과 수련을 통해 사냥감과 하나가 됨으로써 사냥감을 잡는 인디언의 방식을 대조시키고 있다. 인디언들에게 “사냥을 한다”는 것은 몸과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의식을 곧두세워 사슴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하여, 그 사슴이 나타날 지점에 대기하며 자신을 자연계 — 새와 바람 등 — 에 풀어놓는, 하나가 되는 행위에서 시작된다. 사슴은 우리의 노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정성을 지켜본 사슴이 우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사냥은 인간의 영혼이 사냥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즉 “스스로를 다른 생명체와 일치시키는 영적인 경험”이다. 이러 사냥은 인간이 자아의 간옥에서 벗어나 대상 혹은 세계와 일체에 이르는 하나의 수련이며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연민의 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스나이더는 이 연민을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동물들의 연민이라고 함으로써 사냥의 주체를 인간에서 사냥당하는 동물로 바꾼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냥은 “인간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서(『신화와 텍스트들』, 2).” 스스로를 인간에게 내어주는 동물들의 자비로운 자기희생인 것이다. 동물들의 자반적인 자기희생과 이에 대한 인간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간은 아름다운 모습은 인간과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이 상호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실제 삶 속에 아름답게 구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스나이더에게서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었다. 즉 그는 다른 생명체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나움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간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집단으로써 당연히 지구의 청지기 노릇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그는 믿었다. 즉 가상 진화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시적이라고 여겨져 경시되어왔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삶과 철학 속에서 역설적으로 스나이더는 서구 문명에 찌들은 인

류가 대해야 할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북아메리카의 모든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융화시켜나가야 한다.¹³⁾ 원시적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가장 원초적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삶이 가장 본질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나의 모범은 물론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중심적인 환상과 개발과 발전이라는 압제로부터 병든 지구를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도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불교의 교리처럼 상호의존적이며 연기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상생과 공생의 삶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은 무엇보다도 인간 스스로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특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돌보고 가꿀 청지기라는 인식의 전환을 수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스나이더가 주장했듯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그리고 나아가 범인간주의 방향으로의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도 지구라는 생명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스나이더의 미션이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생태계의 문제는 생태계 구성요소들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점이다. 따라서 생태계 존재들간의 관계 혁신 문제는 결국 인간의 자연 또는 타자들에 대한 관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우월/종속의 지배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면서 상호존중의 관계로 발전해야함을 우리는 두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스나이더의 관심의 대상은 항상 인간의 분제였다. 인간이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기에 그들은 그 원인을 찾아 해전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들은 그 원인을 자연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인간중심 사상과 종교적 신앙에서 찾는다.

스나이더 또한 인간의 상생 방식을 원시적인 아메리칸 인디언의 삶에서 찾으면서 지구의 오래된 인간중심주의의 폐단을 예리하게 지

13) Norstrom, 114쪽.

적한다. 특히 그는 기계문명 위주의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 파괴를 단순화했고, 결국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모든 만물의 상호의존성과 상호 친부성을 강조하여 상생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자연이 우리의 인식 변화에 의해서 지배/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게 된 때 우리의 삶도 긴전해지고 풍요로와 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참고문헌

- Astrov, Margot, ed. *American Indian Prose and Essays*. New York: Capricorn Books, 1962.
- Cronon, William. Ed. *Uncommon Ground: Toward Reinventing Nature*. New York: W. W. Norton, 1983.
- Daleski, H. M. *The Forked Flame*. Madison: U. of Wisconsin Press, 1987.
- de Lauretis, Teresa. *Alice Doesn't Feminism, Semiotics, Cinema*. London: Macmillan, 1984.
- Elder, John. *Imagining the Earth: Poetry & the Vision of Nature*. Chicago: U. Illinois Press, 1985.
- Fass, Ekbert. "Gary Snyder." *Towards A New American Poetics: Essays and Interviews*. Santa Barbara: Black Sparrow, 1979. 90-142.
- Hayward, Tim. *Ecological Thought: an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94.
- Henighan, Tom. "Shamans, Tribes, and the Sorcerer's Apprentices: Notes on the Discovery of the Primitive in Modern Poetry," *The Dalhousie Review*, 59(Winter 1979-80), 605-620.
- Herndl, Carl G. & S. C. Brown. Ed. *Green Culture: Environmental Rhetoric in Contemporary America*. Madison: U. Wisconsin Press, 1996.
- McCord, Howard. *Some Notes on Gary Snyder's Myths & Texts*. Berkeley: Sand Dollar, 1971.
- Meeker, Joseph W. *The Comedy of Survival: Literary Ecology and a*

- Play Ethic*. 3rd ed. Tucson: U. of Arizona Press, 1997.
- Murphy, Patrick. *Understanding Gary Snyder*.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ress, 1992.
- Nordstrom, Lars. *Theodore Roethke, William Stafford, and Gary Snyder: The Ecological Metaphor as Transformed Regionalism*. Stockholm: UPPSALA, 1989.
- Sessions, George. Ed. *Deep Ecology for the Twentieth-First Century*. Boston: Shambhala, 1995.
- Snyder, Gary. *Earth House Hold; Technical Notes & Queries to Follow Dharma Revolutionaries*. New York: New Directions, 1969.
- _____. *Riprap and Cold Mountain Poems*. San Francisco: Porth Point Press, 1990.
- _____. *Myths & Texts*. New York: Totem Press, 1960.
- _____. *Regarding Waves*. Iowa City: Windhover Press, 1969.
- _____. *Turtle Island*. New York: New Directions, 1974.
- _____. *The Old Ways*.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1977.
- Stending, Bob. *Gary Snyder*. Boston: Twayne, 1976.
- Sturgeon, Noel. *Ecofeminist Natures: Race, Gender, Feminist Theory, and Political Action*. New York: Routledge, 1990.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963.
- Williamson, Alan. *Introspection and Contemporary*.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4.